

한때 부리당이란 철학자가 흥미있는 우화를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며칠째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하늘소가 서있는 곳으로부터 똑같은 간격으로 왼쪽에는 물이 철철 차넘치는 물통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먹음직한 건조더미가 쌓여있었다고 한다.

하늘소는 어느것부터 선택할것인가를 망설이며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건조한데 씹어먹지 못하는 채 굶어죽게 된다.

후에 두 물통중에서 어느것을 선택할지 몰라 몹시 동요하는 사람을 《부리당의 하늘소》에 비유하고있다. 대국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날로 더욱 치열해지고있는 지금 그 짝에 끼워

《부리당의 하늘소》 신세

서 《량자역일》을 강요받러 남조선당국의 처지가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고 할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양성시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집중하면서 패권전략실현에 광분하고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당국은 경제, 군사, 보건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있는 대국들사이의 짝에 끼워 끌려다니고있다.

사태와 외세의존의 악습에 물젖은 남조선당국이 어리석게도 《복잡다단한 외교안보 환경변화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간에 붙었다 설에 붙었다 하는 식으로 《위험한

줄라기외교》를 해온데로부러 지금 몹시 난처한 처지에 빠진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추구해온 《균형외교》라는것은 미국에 코가 꿰여있는 종신세에 불과한 남조선으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것이였다.

동북아시아지역의 잠재적인 적수들을 군사적으로 포위억제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할것을 꾀하고있는 미국은 남조선에 대아시아배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미국은 이른바 《동맹》이라고 하는 남조선의 처지와 운명은 안중에 없이 고래싸움에서 저들의 편에 서라고 옥박지르고 있다.

외세에 종속되어있고 자주적존엄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남조선당국이 어떻게 행동하리라는것은 보지 않아도 변하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당국은 주변국들과의 약속을 제버리고 미국상선의 요구를 받아들이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경상북도 성주에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체제 《싸드》의 핵심장비를 또다시 끌어들이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주변나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 등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남조선이 그의 최대희생물로 전락되였다》, 《《안미경중》으로 지행해온 문재인정부의 (줄라기외교)가 종말을 고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상전인 미국의 비위도 맞출래, 저들의 대미추종정책에 아니꼬운 태도를 취하는 주변나라들의 눈치도 불래 비지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지리지도 못하는 남조선당국의 궁상스러운 처지는 체질화된 친미사태와 외세굴종정책이 초래한 엉뚱한 귀결, 자주와 존엄을 완전히 상실한 식민지노복의 피할수 없는 숙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태적근성과 외세추종은 남조선에 치욕과 재난만을 가져다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 일

한나라의 의의

지금 남조선의 더불어 민주당이 현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보려고 분주하게 돌아치고있다고 한다.

조선반도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본장본인들이 《성공》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걸로로는 《초불정권》의 모자를 썼지만 하는 짓거리들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집권초기 《사람사는 세상을 반드시 실현

시키겠다》, 《미국에 (NO) 하는것을 배워야 한다.》고 호언장담하던것이 언젠가실제 상전의 《싸드》배치와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굽어드는가 하면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중장책동과 전정연습소동에 날이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사태대국과 동족대결에 이골이 날대로 나서 《한미동맹친가》만 목이 쉬도록 불러대나니 온동력사의 정세가 날로 험악해지고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당국에 《자기 뇌수가 없는 정권》, 《미국만 쳐다보는 꼭두각시정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비난이 쏟아졌는가.

현실이 이러할진대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떠들어대고있는 《성공한 정부》타령이 월변이나 한 말인가.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를 《성공한 정부》라며 추켜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부》라는것도 보수패당과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 않는다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 주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남조선당국과 《탈북자》쓰레기들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흔히 바람따라 돛을 달면서 신념과 주장, 량심도 없이 리해타산에 따라 파렴치하게 놀아내는자들을 가리켜 《박쥐》라고 조소합니다.

중세유럽의 어느 한 작가가 몇몇이동물이지만 새와 같이 날아다니는 박쥐의 특이한 모습과 생태일면을 가지고 《박쥐와 새들》이라는 우화를 만든 때로부터 사람들은 박쥐를 기회주의자, 배신자, 파렴치한의 대명사로 써왔습니다.

남조선에도 리속에 따라 여야당을 분주히 오고간 정치시정배들, 오늘은 이 《동지》, 래일은 저 《동지》로 날아다니며 변절과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인간 《박쥐》들이 수도룩합니다.

특히 오직 저 하나의 리익을 위해 간에 붙었다 설에 붙었다 하는 보수패당수에 맡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도 그런 《박쥐》와 별다른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80살이 되도록 독특한 정견이나 주제가 없이 오직 제 이름자나 날리고 더러운 정치적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새가 되고 때로는 짐승이 되는 박쥐가 바로 이자입니다.

이런 속에 남조선당국은 경제, 군사, 보건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있는 대국들사이의 짝에 끼워 끌려다니고있다.

사태와 외세의존의 악습에 물젖은 남조선당국이 어리석게도 《복잡다단한 외교안보 환경변화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간에 붙었다 설에 붙었다 하는 식으로 《위험한

가버리고 이번에는 또다시 보수패당인 《미래통합당》에 계 바라들어 《당재건》, 《보수혁신》을 떠벌이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노릇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리익을 위해서는 여야

를 가리지 않고 변신하는 《늑은 박쥐》, 정치간상배입니다. 그나저나 동물세계의 박쥐들이 참 억울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박쥐들은 태어난 곳을 버리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서인지 밤에만 활동하는데 이 《늑은 박쥐》는 제 동지

도 명백치 않은데다 인간주물들과 보수꼴통들을 공화국과 불신하고 대결하도록 낮이고 밤이고 일새없이 부추기고있으니 말입니다.

얼마전에도 이 《늑은 박쥐》는 《탈북자》쓰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때문에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 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책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구만요.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황금속

서양에서는 박쥐가 동굴속에 서식하면서 밤에만 활동한다고 하여 《악마》, 《유령》, 《죽음》, 《공포》 등으로 인식되어왔는데 혹시 그쪽에서 날아들어 번이된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시기 《흙수통일연구》나, 《북체제개혁》이니를 고아할 때 이자의 대결기질을 모르는바가 아니었으나 로구가 되였어도 독이발을 드러내며 광란하는것을 보면 박쥐들중에서도 제일 악착한 《흙혈박쥐》라 해야 할것입니다.

이런자가 《미래통합당》을 《재건》, 《혁신》한다고 선두에 나섰으니 《적폐본당》이 갈래가 어찌이고 그 미래가 어찌하겠는지도 충분히 짐작할수 있구요.

황금속

《흙혈박쥐》

미국에서 인종주의반대시위 10여일째 계속

미네아폴리스시의회 시경찰국을 해산

미국에서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들이 10여일째 계속되고있다.

백인경찰의 흑인살인만행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는 지금 뿌리깊은 인종주의제도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폭발로 번져가고있다.

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정의를 위한 시카고행진》이 진행되였다.

행진참가자들은 한 공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인종주의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흑인살인사건에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사회에 뿌리깊은 인종주의제도를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전국적범위에서 계속 확대되고있는 속에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시의회는 이날 황급히 시경찰국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적폐세력이 틈만 있으면 《보안법》을 내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민중의 생존

권요구까지 빨간딱지를 붙여 억압하는것도 이 악법이 있기때문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보안법》 폐지라고 주장하였다.

적폐세력이 틈만 있으면 《보안법》을 내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민중의 생존

6일 시카고시에서 약 2만

뉴욕시에서는 야간통행금

본사기자

여러 나라에서 미국경찰의 흑인살인만행을 규탄

벨지끄, 마자르, 영국 등 유럽 각지에서 7일 미국경찰의 흑인살인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벨지끄의 브뤼셀에서 진행된 시위들이 1만명 이상의 각계층 군중이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숨을 쉴수 없다》, 《경찰은 살인자》라고 쓴 구호판과 프랑카드들을 들고 흑인들에 대한 폭압을 일삼는 경찰의 만행을 단죄하였다.

마자르의 부다페스트에서는 1 000여명의 주민들이 미국대사관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경찰은 어디에나 있지만 정의는 없다고 하면서

미국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살해된 흑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항의행동을 취하였다.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도 수만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자들은 미국대사관앞에 모여 한쪽무릎을 꿇고 주먹을 쳐들면서 《과부색에는 죄가 없다》, 《《COVID-19》보다 더 위험한 비루스는 바로 인종주의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단마르크의 쾰른하브과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도 많은 시위자들이 미국대사관앞에 모여 백인경찰의 야만적

인 만행을 단죄하였다.

나미비아대통령 하계 게인 고브가 8일 미국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비난하였다.

그는 인종주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맞서싸워야 할 암과 같다고 하면서 나미비아는 과부색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것을 반대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세계도처에서 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종주의를 규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가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튀르키예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8일 미국경찰의 흑인살인만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숨을 쉴수 없다》, 《인종주의를 끝장내라》, 《《치안유지법》을 비롯하여 흑인들에 대한 미국경찰들의 차별행위를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국정부가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청산하고 인종주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파쇼악법의 폐지를 주장

보도에 의하면 국민주권련대가 1일 《21대 국회는 보안법을 무조건 철폐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보안법》 폐지라고 주장하였다.

적폐세력이 틈만 있으면 《보안법》을 내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민중의 생존

언론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주장

8일 남조선인테레트신문 《자주시보》가 적폐후보박선운동을 벌였다는 죄 아닌죄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성원이 쓴 글을 실었다.

같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한쪽이 되어 성노예피해자들의 거처지를 강제수색하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력사를 부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적

언론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주장

8일 남조선인테레트신문 《자주시보》가 적폐후보박선운동을 벌였다는 죄 아닌죄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성원이 쓴 글을 실었다.

같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한쪽이 되어 성노예피해자들의 거처지를 강제수색하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력사를 부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적

6. 10 만세시위투쟁에 대한 극악한 탄압학살만행

지금으로부터 94년전 온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며 세차례 벌어진 우리 민족의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쌓여있었던 순종이 사망한것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화되였다.

1926년 6월 10일 당시 일제는 순종의 상가 지나갈 길을 따라 수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대포까지 동원하여 군중을 위협해나섰다.

그러나 일제에 대한 중오심을 품고 끝 좌우에 빼곡이 늘어섰던 군중들은 순종의 상가가 창덕궁을 떠나 종로를 지나갈 때 일제히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수많은 시위군중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 운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세를 올렸다.

한편 일제는 악명높은 고등경찰제도를 내오고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였으며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들을 꾸며내며 우리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봉을 일으켰다.

이날 서울에서 시작된 반일시위투쟁은 삼시에 인천,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로 확대되었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여기에 겁을 먹은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수많은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평화적시위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한 과포탄압을 감행해나섰다.

각계층 시위군중은 일제군경찰과 맞서 곱할없이 싸웠고 대포까지 동원하여 배치하면서 조선민족의 반일투쟁기세를 꺾어보려고 날뛰었다.

일제는 《조선인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제벌을 늘어놓으며 조선장점기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다치게대로 살륙하는 치명리는 범피를 저질렀다.

조선민족살살을 노린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살륙만행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는 특대형국가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도 덮여버릴수도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김혜 성

없이 검문, 검색, 순찰소동을 벌여왔다.

서울에서는 일제 통행을 금지시키고 《요시찰인》이라는 구실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대로 체포구금하였으며 시내의 곳곳에 무장경찰들과 기관총, 대포까지 배치하면서 조선민족의 반일투쟁기세를 꺾어보려고 날뛰었다.

6.10만세시위투쟁참가자들에게 대한 일제의 탄압만행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삼천리강토는 우리 겨레의 피로 붉게 물들여졌다.

일제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말미암아 삼천리강토는 우리 겨레의 피로 붉게 물들여졌다.

6.10만세시위투쟁에 대한 일제의 파쇼폭압만행은 명백히 조선민족말살계획에 따라 조직집행된 고의적인 대학살 범죄사건이였다.

당시 우리 민족의 반일기세에 절절한 일제는 시위투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각도의 경찰들과 군대들을 동원하여 서울시내와 그 주변에 살벌한 경제망을 펼쳤고 인천에 정박하고있던 여력적의 군함의 해병들을 상륙시켜 대기시켜놓았으며 수천명의 경찰병력으로 밤낮이 따